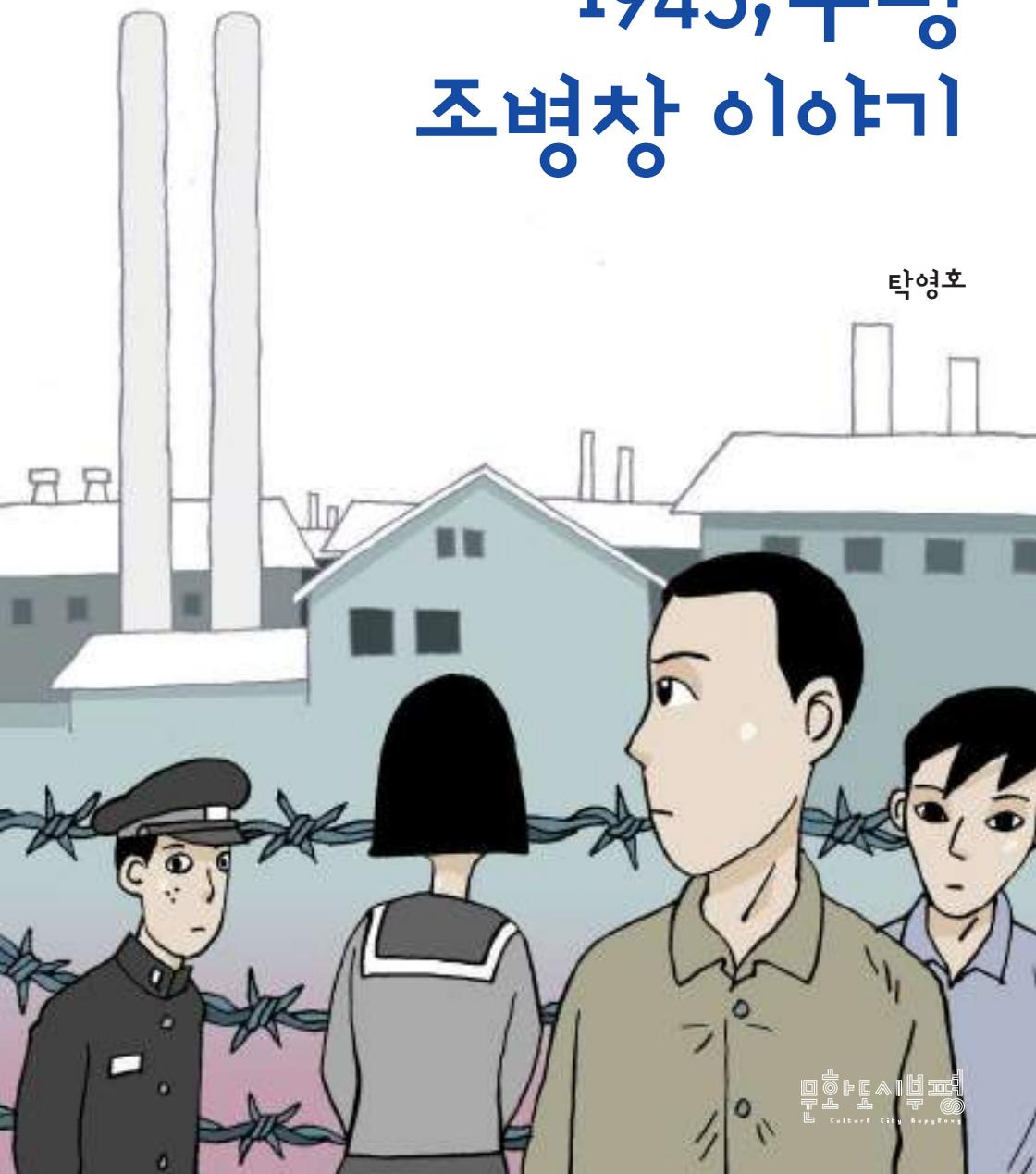


만화 부평사

1945, 부평 조병창 이야기

탁영호



1945, 부평
조병창 이야기

만화 부평사

1945, 부평 조병창 이야기

탁영호

조병창, 소중한 기억의 공간

오래전부터 우리 역사 속 이야기들을 만화로 그려 왔던 나는 부평에 관한 역사 만화를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받았을 때, 내 만화 속에 어떤 이야기가 담길 수 있을지 부평의 역사가 궁금해졌다.

부평에 있는 인천육군조병창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들은 나는 이곳 조병창이 부평의 근현대사는 물론,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상징하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었다.

사실, 이전까지는 조병창의 존재를 몰랐다. 일본군이 침략 전쟁을 위해 만들어 놓은 무기 생산 공장이 부평에 있었다는 점이 놀랍고 당혹스러웠다. 자료 조사를 위해 현장 답사를 했을 때는 거대한 크기의 공장 시설들과 지하 동굴들의 규모에 어안이 병병할 지경이었다.

그곳에서 식민지 조선인들이 고통스러운 노동을 견뎌 내야 했을 뿐 아니라, 어린 소녀들과 소년들이 혹독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노동에 시달렸다는 사실과 근거를 보면서 아픈 역사의 기억을 남겨야겠다는 사명감도 들었다.

우선 스토리 라인을 정했다.

1. 프롤로그: 현재를 배경으로, 부평 조병창을 찾은 노인과 그의 손자
2. 모집 광고: 시점을 과거로 옮겨, 조병창 노동자를 모집하는 광경과 그곳에 모인 조선인들의 안타까운 속사정
3. 공장의 굴뚝: 조병창의 세분화된 공장 시스템과 힘든 노동
4. 고달픈 숙소 생활: 열악한 거주 환경과 애환
5. 땅굴: 지하에 무기 공장을 만들기 위해 학생들까지 동원해 벌인 작업

6. 에필로그: 아픔과 다툼의 역사는 잊지 말아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불우했던 역사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사실

그림 작업을 할 때 수많은 캐릭터들을 등장시키는 일은 작가로서 매우 곤혹스럽다. 자칫 생김새와 옷차림이 비슷하면 독자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인물을 입체화하는 데 고심했다.

또 이 만화를 보시는 분들은 모든 하늘색이 매우 청정한 푸른색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도 있었겠지만 나는 반복적으로 맑은 하늘을 칠했다. 이렇게 맑고 청정한 날에 하는 혹독한 강제 노역이 얼마나 슬픈 역사를 반영하는지 오히려 잘 보여 준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 작품을 쓰고 그리는 동안 부평구문화재단과 부평문화원, 부평역사박물관의 여러 선생님들이 아낌없는 지지와 지원을 보내 주셨다. 또한 동북아역사재단 조건 선생님은 기획 단계부터 본문의 정보 페이지를 구성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조언과 감수를 해 주셨다.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우여곡절 끝에 작업을 마치면서, 처음 답사를 떠나 조병창을 봤을 때 일행들과 나누었던 말이 떠오른다.

이곳을 평화와 인권을 기억하는 공간으로 만든다면 생생한 역사 학습장이 될 수 있겠다는….

부평의 역사를 올바르게 전하겠습니다

부평은 근현대를 넘어 오랜 역사 앞에 수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 유구한 역사와 가치를 인정받아 부평은 '2021년 문화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발맞춰 다양한 문화 사업을 구상·계획하여 구민 여러분께서 피부로 느끼실 수 있는 성과를 얻기 위해 문화재단과 지역의 문화예술인들 그리고 부평구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해, 새롭게 발간한 부평사(富平史)도 그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올해는 역사문화자원 아카이브(Archive)사업을 통해 부평사를 토대로 역사만화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진행한 부평사 작업에 편찬위원장으로 참여하면서 구민 여러분께 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보다 쉽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지신 분들과 힘을 합쳐 『1945, 부평 조병창 이야기』를 발간하였습니다.

3년 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부평사'를 한 권의 만화에 모두 담기는 힘들었지만 오히려 그런 이유로 우리 부평 역사에서 중요했던 사실들을 전달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1945, 부평 조병창 이야기』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 모두가 좀 더 쉽게 부평의 역사를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모두가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에는 역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보다 나은 길을 찾기 위해 우리는 과거를 되짚어 보고 공부해야 합니다. 역사는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앞으로도 부평구와

부평구문화재단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부평의 역사를 구민 여러분들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부평사 발간에 힘써 주신 부평사편찬위원회 위원님들과 부평문화원 직원 여러분, 그리고 『1945, 부평 조병창 이야기』 발간을 위해 애써 주신 이영훈 부평구문화재단 대표 이사님과 문화도시센터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풀어내기 어려운 역사와 이야기를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재미와 의미를 부여해 주신 탁영호 작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으실 독자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기쁨과 행복이 가득 하길 기원하겠습니다. 미래를 향해 더 큰 걸음을 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2022년 6월
부평구청장 차준택



이재섭

돈을 벌기 위해 황해도에서
부평까지 흘러들어 왔다.
조병창에 들어가면서 생각지 못한
난관에 부딪히지만 동료들의
도움을 받으며 차츰 조병창
생활에 익숙해진다.



황순식

폭파 기술자를 구한다는
말을 듣고 조병창에 왔으나
어린 학생들까지 동원해
땅굴 공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한다.



귀례와 영숙

여자들까지 전쟁터로 끌고 간다는
이야기에 조병창에 지원한다.
병원에 배치돼 일하는 동안
이곳에서 벌어지는 참상에
놀란다.

제1 공장장

일본 육사 출신 조선인
공장장으로 조병창 실무를
맡고 있다. 일본 패망 후
또 다른 운명을 맞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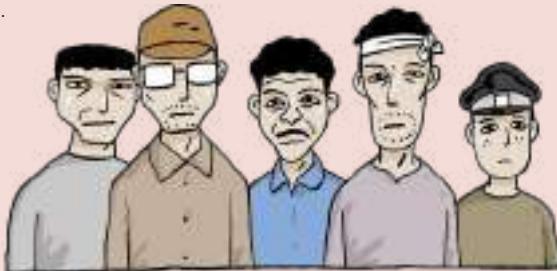


조병창 노동자들

저마다 깊은 사연을 지닌 채 조병창에
들어온 사람들. 거대한 억압에 짓눌려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맡은 분야에서
묵묵히 일하며 건강한 삶을 이어 간다.

일본군 헌병

조선인을 괴롭히는 헌병.
땅굴 공사 과정에서
노동자들과 충돌을 빚자
군도를 빼어 든다.



작가의 말 4

인사말 6

1. 부평 10

2. 모집 광고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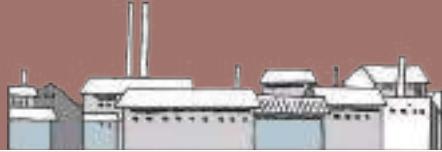
3. 공장의 굴뚝 52

4. 고달픈 숙소 생활 100

5. 땅굴 117

아픔의 역사를 기억의 공간으로 196





1 부평











때론 자진해서 온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업자들 꺾에 빠졌거나 전쟁에 나가는 대신 온 사람들이 많았어.



전쟁 말기에는 강제 동원으로 끌려온 소년들도 많았단다.

어린 소년들까지요?



그래..., 여드름투성이 중학생부터 매일 마른 기침을 하는 아저씨들까지 모여 있었지.



아, 그런 모습이 상상이 안 돼요.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도 그렇지만,



비참했던 역사의 현장이 우리가 사는 부평에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게 말이에요....



그래, 불행했던 과거의 산물이지만 이제는 평화의 상징물로 남아야 할 거야.



그때 조병창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자세히 알고 싶어요.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때 일들이 어제였던 것처럼 생생하게 보인단다.



석탄과 나무 타는 매캐한 냄새와 연기가 가득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쾅한 눈빛으로 몰려다니던 그때 그 모습이....



나쁜 기억이 그대로 다 살아나....

조병창은 무엇을 하는 곳일까?



1. 일본군은 왜 조병창을 만들었을까?

조병창은 일본군이 사용할 무기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한편 고장 난 부품을 수리하고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일본군의 대규모 무기 생산 및 수리 공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본군에는 조병창과 같은 시설이 육군과 해군에 각각 있었는데, 부평에 있었던 조병창은 일본 육군이 만든 육군조병창이었습니다.

1940년대에는 일본 열도와 한반도, 중국 동북부에 모두 8개소의 조병창이 있었습니다. 일본 열도에는 도쿄의 제1조병창과 제2조병창을 비롯해 사가미, 오사카, 나고야, 고쿠라 등에 조병창이 있었고, 중국 동북부 당시 만주 평원에는 남만육군조병창이, 한반도에는 지금의 부평에 인천육군조병창이 있었습니다.



©인천도시역사관

일본 육군조병창 지도 1940년대 주요 조병창의 위치와 각 조병창의 표식이 표기된 지도. 각 조병창에서 만든 무기에는 고유한 표식이 새겨져 있다.

2. 부평에 조병창이 들어선 이유는?

부평이 새로운 조병창 건설 장소로 선정된 것은 크게 세 가지 요인을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군사적인 요인입니다. 부평은 분지 지형이기 때문에 외부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비교적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거의 원형에 가깝게 이어진 산줄기로 인해 부평 지역은 자연스럽게 요새와 같은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더구나 산이 없는 북동쪽에는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으니 적의 지상 병력을 막는 데 이보다 더 좋은 지형은 찾기 힘들었을 겁니다. 또한 분지 지형은 안개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비행기의 공습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부평의 지정학적 이유 때문입니다. 부평은 당시 경성과 인천의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성은 한반도 내에서 가장 큰 인력과 물자의 공급지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조병창에는 경성에서 공부하던 수백 명의 학생들이 노동력으로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부평은 중일 전쟁에 필요한 병력과 무기가 들고 나는 인천항과 가까웠습니다. 부평에서 생산한 무기는 인천항을 통해 중국 전선으로 이동시키고, 또 무기를 만들 원료 역시 인천항을 통해 빠르게 부평으로 이송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 이유입니다. 경제적 이유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하나는 1930년대 후반 조병창 건설이 시작되기 이전 이미 부평 일대에 무기 생산에 도움이 되는 시설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하나는 부지 확보가 용이했다는 점입니다. 대규모 조병창 건설을 위해서는 부지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부평에는 1920년대부터 한반도 주둔 일본군의 군용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추가로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이 필요했지만 대부분의 부지는 기존 군용지를 전용할 수 있었습니다.

3. 조병창의 조직과 규모

인천육군조병창은 1940년 12월 처음 창설되었고, 1941년 5월 본격적으로 운영을 개시했습니다. 조병창 예하에는 부평에 개설했던 제1제조소와 애초부터 운영하고 있었던 평양제조소가 있었습니다. 부평제1제조소에는 모두 3개의 공장 지대가 있었는데 각 공장 지대마다 소총과 탄약, 총검과 군도 등을 나누어 생산했습니다. 제조소와 공장 외에도 창고와 노동자 숙소, 공업용 수도와 도로 및 철도 등을 건설했습니다. 또한 여느 조병창과 마찬가지로 병원이 있었는데, 지금도 남아 있는 병원 건물에는 매일 무기를 만들다 다친 사람들이 실려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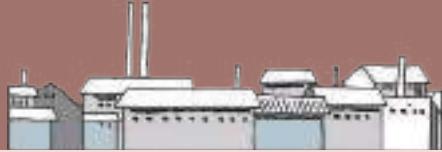
부평에 있었던 일본 육군조병창의 규모를 이야기할 때 조병창 인근의 관련 공장들을 꼭 함께 언급해야 합니다. 이들은 조병창과 한 몸으로 움직이며 침략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생산했습니다. 주요한 것으로 히로나카상공, 조선제강소, 조선기계제작소, 도교자동차공업, 시바우라제작소, 히타치제작소, 미쓰비시제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미쓰비시제강 부평 공장의 경우 부평 일대에 미친 영향력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남아 있는 출사택을 비롯해서 '미쓰비시'의 우리 한자음 표기인 '삼릉(三陵)'이라는 지명을 접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당시 시대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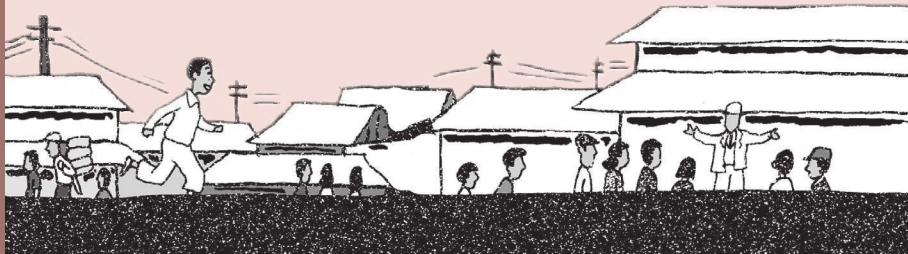
©부평역사박물관

조병창 항공사진 광복 이후 항공기에서 촬영한 조병창 일대 모습





2 모집 광고













자, 그러면
취업 지원자들은
조병장 정문 앞에서
접수하세요.

언제까지
가면 되나요?

우리도 가서
한번 알아볼까.



아무 때나 와서
신청하면 됩니다.



난 당장 가서
지원서 내야지.
늘면 뭐 해, 히히~

나도
같이 갑시다.



쫓쫓~
그렇게 속고도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소?

예!?



하나라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법!



하나는 뭐고,
열은 뭐니까?
어르신...

일본이 우리를
황국 신민으로
생각하는 줄
아시오?



뭐 그런 거
아닌가요? 매일
황국 신민 서사를
외우게 하잖아요.

재들은
우리한테
충성을 요구할
뿐이오.



황국 신민 서사를
다 외우고 있어요?

음... 하나는...
우리 황국 신민은
충성...으로써...
군국에 보답...



아, 맞네.
충성!

들은...
우리 황국 신민은
서로 신에협력하여
단결을...



충성을 강요하려면
먼저 단결을 하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셋은...
우리 황국 신민은
인고단련, 힘을 길러
황도를 선양한다.



황도...
즉 천황의 뜻을
따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노예 취급을
받는 거라고.



저기 조병창이 있는 자리는 원래 농민들이 농사를 짓던 땅이오.

어르신 땅도 저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조상 대대로 지켜 온 내 논밭이 어찌 되었는지 아시오?

헐값에 강제로 빼앗겼소.



와, 말도 안돼! 완전 날강도네요.

토지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군요.



우리는 나라를 빼앗긴 노예 신세니까 저놈들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도둑놈들이지. 저 땅이 어떤 땅인데.



거참, 찝찝하네. 그럼 우리도 노예라는 거죠?

설마 조병창에서 우리를 노예 취급 하겠어요?



일본 탄광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생지옥에서 일하던데요.

그래서 우리가 운이 좋은 거라고요.



아무튼 지금 가서 지원합시다.

아, 그래요. 경쟁률 높아지기 전에...



어! 벌써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네!

어구, 빨리 갑시다.



귀레야, 너도 그 소문 들었어?

어떤?









일본인하고
다투자마자
징용 영장이 나와서
이리로 왔어요.

세상에!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뭐, 조선인이라는
이유겠죠.

총독부에도
조선인 차별이
있으니...

황국
신민이라는
말이 얼마나
허구인지
보여 주는
거죠.



조병창에서도 일본인
직원이든 조선인 관리든
다 우리를 차별한다고
하던데...

어딜 가나
다 똑같아요.
더럽다, 더러워...



저기, 지원 서류를
대신 써 주면 안 돼요?
글을 몰라서...



글을 모른다고요?
여긴 국민학교 졸업 학력
이상이어야 하는데...

아니, 일만 잘하면
되는 거 아녜요?



그리고 조병창에서
일하려면 일본어도
할 줄 알아야 하고요.



별놈의 제약이
심하구만.
에이, 난 치사해서
안 한다!

저 사람이!



자네는 팔봉이네
둘째 아들이
아닌가?

어르신,
안녕하세요.



그래, 여긴
어쩐 일이야?

아, 그게
그렇게 됐어요.



뭐가?

아버지 대신
조병창에
지원했어요.



뭐야?
아버지가
어쩔길래?

글쎄,
아버지한테
징용 영장이
나왔지 뭐예요.



자네 형도
일본으로
징용 갔잖아?

아버지마저
징용 가면
우리 식구들 생계는
어떡하냐고요.





우리 동네에서도 젊은 남자들은 싹 데려갔어요.



아, 그래서 여기로 왔군요.



맞아요. 전쟁터나 탄광 같은 곳을 피하려고 어쩔 수 없이 온 거죠.

무기 만드는 곳이 뭐가 좋다고 지원을 했겠어요.



거긴 뭐 하는 곳인데요?



어휴, 어린 학생을...



이게 식민지 국민의 설움 아니겠어요.





침략 전쟁을 위한 무기 생산과 수탈

1. 조병창에서 만들던 무기들

인천육군조병창은 설립 초기에 주로 총기류를 제작했는데 매달 소총 2만 정, 경기관총 및 중기관총 각 1백정, 총검 2만 자루, 군도 1천 자루 등을 생산했습니다. 이후 전장의 수요에 따라 그때그때 다양한 무기와 군용 기계 부품, 차량 등도 생산했습니다. 패전의 기운이 감돌던 무렵에는 매달 소총 4천 정, 총검 2만 자루, 소총탄환 70만 발, 포탄 3만 발, 군도 2만 자루, 그리고 차량 200대와 소형 배 250척, 무전기 200대 정도를 생산했습니다. 이외에도 잠항정, 선박 엔진, 마구, 치중차, 작업 용구, 항공기 부품 등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수량의 무기들을 다양하게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무기 제작 수량은 일본 열도에 있던 주요 조병창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것으로, 일제는 인천육군조병창에 막대한 금액을 투입하였는데 1942년도 예산은 약 2,700만 엔이었습니다. 같은 해 경기도 총 세출액이 약 2,880만 엔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일제가 조병창 무기 생산에 얼마나 많은 열을 올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육군조병창에서 만든 총검



육군 조병창 화공창 용기

2. 공출, 무기 생산을 위해 수탈된 것들

일제는 인천육군조병창에 사람들만 강제로 동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기 생산이라는 명목 아래 민중의 숟가락, 낫그릇 등 생활 물자까지 몽땅 수탈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총독부와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식민지 곳곳에서 철과 구리를 수탈하여 조병창에 끌어모았습니다.

일제는 철과 구리 등 무기 제작에 필요한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 「금속류 회수령 시행 규칙」을 공포했습니다. 「금속류 회수령 시행 규칙」



인천경정제일정회 동유기 헌납 기념사진

에 규정된 회수 물건은 철과 동 또는 황동, 청동 같은 동합금을 재료로 하는 물자였습니다. 조선에서는 194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일제는 조선인이 가진 생활용품 중 필요한 금속류를 강제로 수탈했습니다.

일제는 산더미처럼 쌓인 조선인의 생활용품을 조병창의 거대한 고로에서 녹여 침략 전쟁을 위한 총과 총알을 만들었습니다. 수탈된 금속류들은 단순한 쇠붙이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인이 오랫동안 대를 이어 사용했던 유산이며, 한 끼 한 끼 생계를 이어 갈 수 있게 한 생명의 도구였습니다. 일제는 금속만 녹인 것이 아니라, 조선인의 일상을 전쟁의 용광로 속에다 녹여 버렸던 것입니다.

3. 조병창 무기가 말하는 침략 전쟁의 실상

일제가 부평에 조병창을 만들고 수많은 인력과 물자를 동원하는 동안 전세는 점점 기울고 있었습니다. 애초 중국 침략을 위해 건설했던 조병창은 이제는 미군의 상륙에 대비한 마지막 '결전' 시설로 탈바꿈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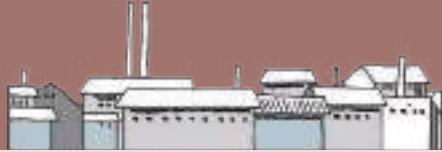
미군의 공습으로 생산 능력이 저하된 도쿄 제1조병창의 설비를 부평으로 이전해 기존보다 약 2배가량 많은 실탄을 증산토록 계획했습니다. 일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미군의 공습에 대비해 대규모 조병창 지하 공장을 지으려고 땅굴을 팠습니다.

늘어난 무기 생산 목표를 맞추기 위해 공장에서 일하고, 그와 관련된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고, 또 이를 지하화하기 위해 산지를 굴착하는 일들은 결국 식민지민이었던 당시 조선인들에게 강제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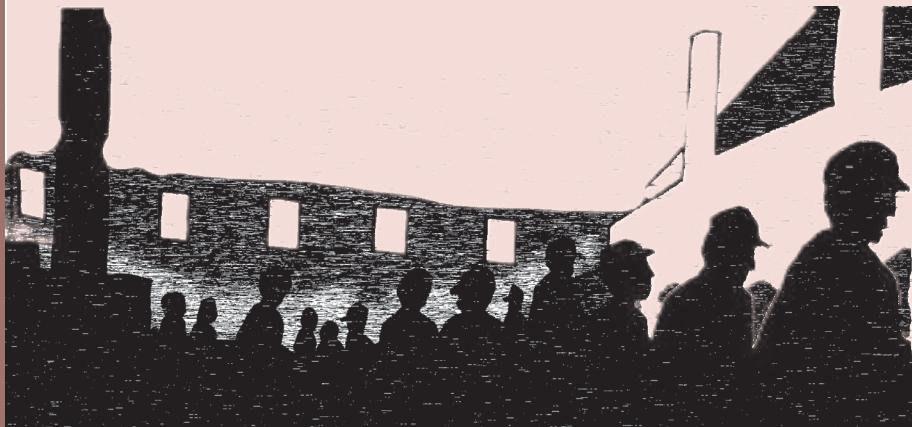
備考	計	宿命基礎要員	鐵道工事要員	地下工事要員	區分	
					日	月
	500			500	5	20
	500	500	300		4	5
	500			500	4	10
	700	400	300		4	14
	800			500	4	20
	700	500	400		4	25
	400			400	5	1
	500			500	5	10
	500			500	5	20
	5000	1000	1000	1800	計	
				外	備	
				工	考	

일본군의 조선인 동원 계획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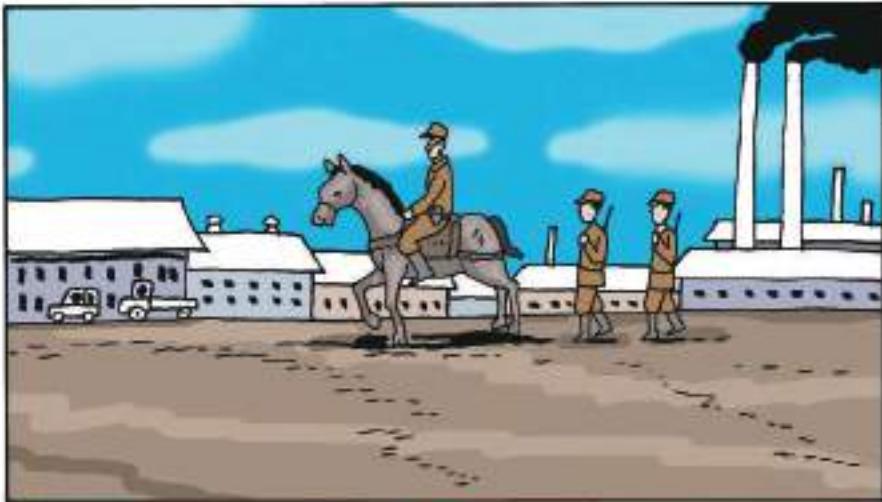


3 공장의 굴뚝





















지금 이 시간에도
황군들은 남태평양에서
대동아 전쟁을 위해
피를 흘리고 있는데



조병창에서
절대 금기 사항인
타 작업장을
염탐하는 행위를
하다니...

군기가
빠질대로
빠졌어!
안 그래?



이번 한 번은 특별히
봐주는 거니까
앞으로 교육을
잘 시켜!

예,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 앞으로
주의 깊게 관찰하겠어.
조심해!



이봐!
나도 널 주의 깊게
감시하겠다.
알겠나!?

예.

가서 일하자고.
어서 와.



시간 없으니까
어서 포장을 합시다.

영차~

영차~



이런! 코피가 나네.
괜찮아?

예...



후!



내가 무슨 그리
큰 잘못을 했다고
피범벅이 되도록
맞아야 하는 거죠!?



고작 코피 갖고
피범벅이라니...
진짜 그렇게
되고 싶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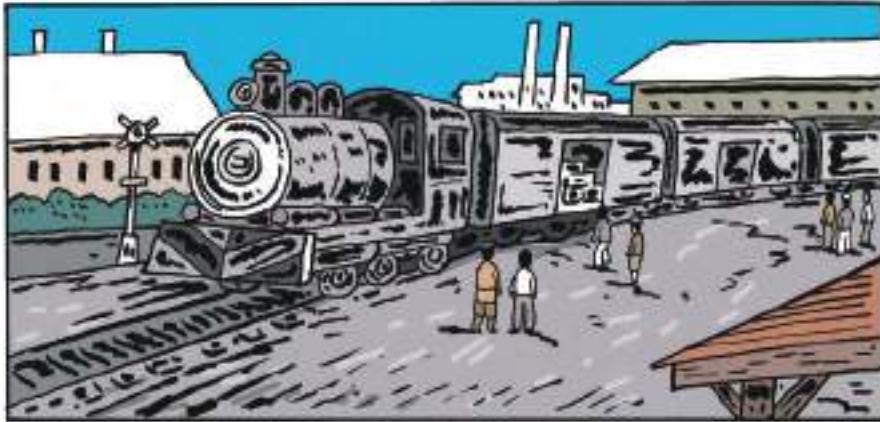
자네가 여기
규칙을 어겼기
때문이야.

저는 정말 공장 문이
조금 열려 있길래
살짝 봤을 뿐이에요.













우와!
이것들이
다 뭐예요!



중국에서 가져온
범종 같은데.

장식품도 있고
동상도 있고...

제사용품들도
많아요.



와~ 마치
박물관에 온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이 쓰던
철물들이 중국을
침략하는 무기가 되어
되돌아가는구나.

전쟁 때문에
문화재들도
수난을 당하는군요.



어이! 거기서 뭐 해!
빨리 움직여!

아, 예~
알겠습니다.



어이쿠~
이번 상자는
더 무거워요.



아이고 허리야~ 하루가 엄청나게 긴 것 같아요.

그렇게 말야. 어서 숙소로 가서 밥 먹자구.



식당에서 먹는 거 아녜요?

식량을 배급받아서 우리가 알아서 해 먹어야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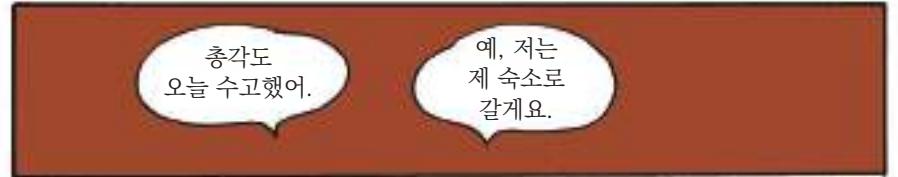


쥐꼬리만 한 배급품으로 버티려니 항상 배고파.

텃밭에 가서 상추나 따 와야겠다.



토끼도 아니고 매일 풀만 먹으니.



총각도 오늘 수고했어.

예, 저는 제 숙소로 갈게요.



자, 식사합시다.



처음이라서 배고플 테니까 누룽지라도 더 먹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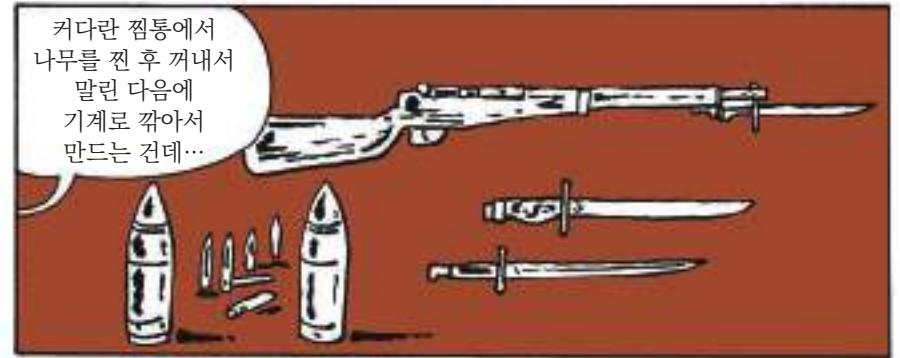
예, 고맙습니다.















1. 조병창에 동원된 식민지 조선인들

전황이 악화될수록 인천육군조병창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중요성만큼 공장 시설이 늘어났고, 이에 따라 더 많은 조선인들이 강제 동원 되었습니다. 일부는 부평 인근의 주민들이었지만 대부분은 경성과 인천,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끌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선인 노동자들은 조병창 공장에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단순 노무자, 사무직, 간호사 등 다양했습니다.

1945년 3월 인천육군조병창에서 작성한 문건에는 조병창의 노동자를 11,300명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 중 식민지 조선인은 9,000명에서 10,000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동원된 조선인들의 숫자로 당시 조병창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제의 전황이 악화될수록 강제 동원 된 조선인들의 수는 늘어났습니다. 전쟁 말기 조병창의 지하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동원된 사람들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때 만들어진 지하 시설을 '부평지하호'라고 부릅니다. 이를 건설하기 위해 동원된 조선인들은 약 8,000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을 포함하면 1945년 8월 해방 당시 조병창에 동원된 조선인의 총규모는 거의 2만 명에 달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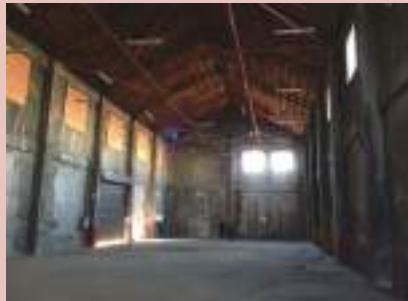


© 태경호

해방 예감 조병창에 강제 징용 된 노동자들을 기억하기 위해 부평공원에 세운 조형물

2. 열악한 처우와 작업 환경

일제는 자신들의 침략 전쟁에 식민지민을 수없이 동원했습니다. 말로는 '내선일체, 일본과 조선은 한 몸'이라며 조선인들을 일제의 편으로 꼬여 냈지만, 정작 조병창의 조선인들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조병창 내에서 정해진 곳 외에 다른 곳을 돌아다니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생산량은 정해져 있었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잔업을 해야 했습니다. 잔업을 한다고 추가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되는 잔업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쉬지 않



© 부평문화원

조병창 공장 내부 조선인 노동자들이 고통스러운 노동을 버텨야 했던 작업 현장

고 돌아가는 절삭 기계를 앞에 두고서도 졸음은 참기 힘들었습니다. 규율을 어기거나 제대로 작업량을 채우지 못했다고 구타당하는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조병창에서 조선인들은 고되고 오랜 노동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열악한 작업 환경으로 인해 늘 크고 작은 사고가 따라다녔습니다. 무엇보다 아직 어려 기계를 제대로 다루기 힘든 학생들이 다치는 일이 잦았습니다. 조병창 병원에서 일했던 조선인 간호사는 "공장에 국민학교(현재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한 아이들이 많이 있었죠. 한번은 어떤 아이 옷이 기계에 빨려 들어가는 바람에 팔이 하나가 떨어져서, 팔 하나 따로 가져 오고 좀 있다가 아이를 따로 데려 오고 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3. 미쓰비시 줄사택, 그리고 삼릉

인천시 부평구 행정복지센터 옆에는 창고처럼 생긴 길고 허름한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미쓰비시[三菱] 줄사택'이라고 부르는 이곳은 기다란 건물에 칸칸이 작은 방들이 이어진 형태입니다. 지금은 3개소만 남아 예전의 모습을 상상하기 어렵지만, 이곳은 한때 수천여 명이 생활하던 커다란 주택 단지였습니다. 일제는 조선인 노동자들을 동원한 뒤 이곳에 생활하게 하였습니다.

줄사택 방식의 공동 숙소는 건물을 짓고 관리하기에 용이했고, 무엇보다 조선인 노동자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기에 유리했습니다. 이곳은 당시 조선인 노동자들의 생활과 역경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지금까지도 이 지역에는 '미쓰비시'의 우리 한자음 표기인 '삼릉'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인근 '삼릉교회', '삼능식당' 등의 간판에 여전히 그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 태경호

미쓰비시 줄사택 일제강점기 미쓰비시 제강 노동자 사택



© 부평역사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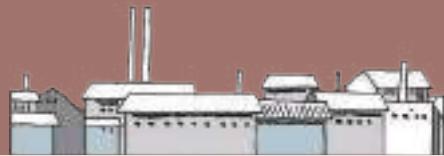
미쓰비시 마크 작업모 미쓰비시 공장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작업모. 모자의 옆면에 미쓰비시 상표가 붙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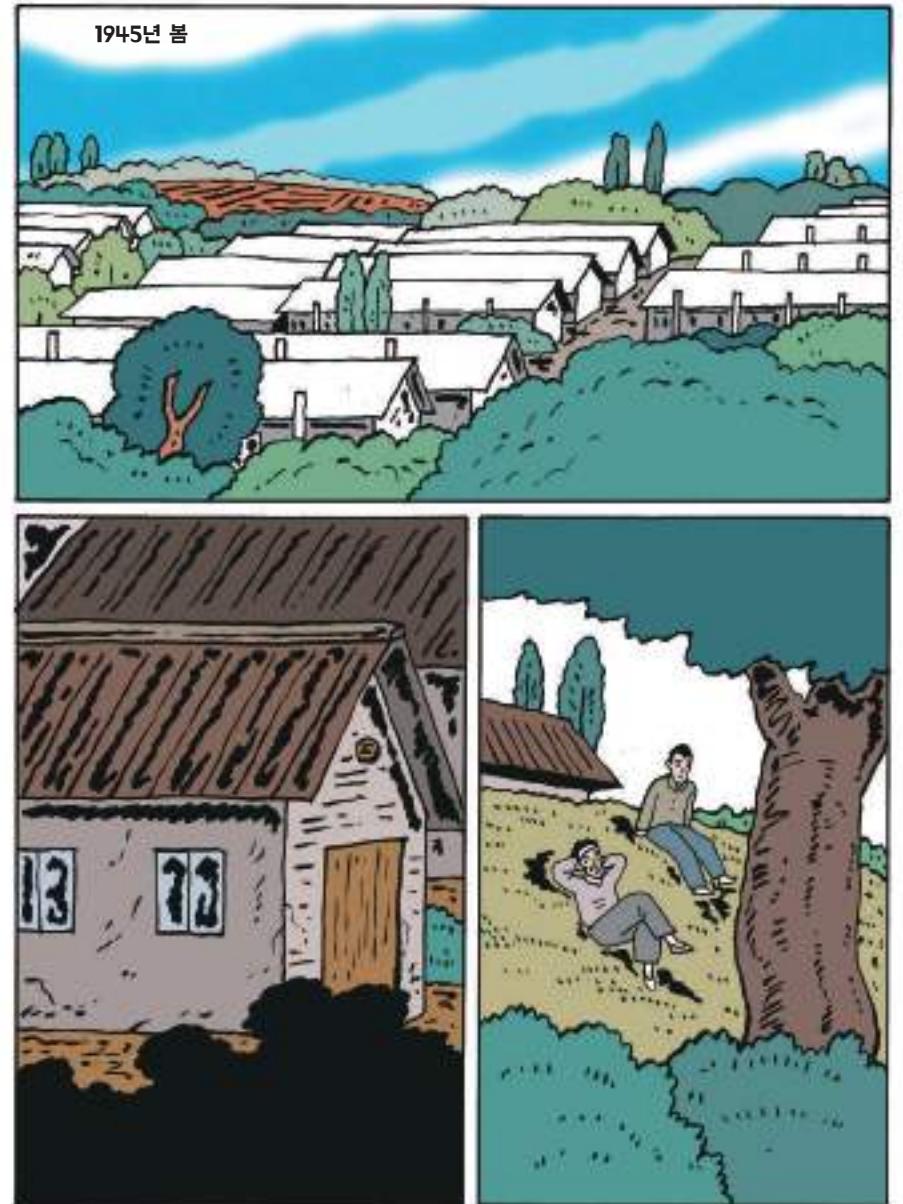
© 부평역사박물관

미쓰비시 사택 내 '삼능' 마크 배전기 배전기 바닥에 '삼능(미쓰비시)' 마크가 새겨져 있다.





4 고달픈 숙소 생활











야!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이 사람들
정신머리가
헤이해졌구만!

지금이 어떤 시국인데
술을 퍼마시며
흥청망청이야!
당장 숙소로 돌아가!



여보슈!
우리가 당신 부하야?
왜 반말이냐고!

뭐야!?

또 반말!

모처럼 휴일인데
맘 편히 쉬지도 못해?
그런 당신도 낚시하러
갔다 온 것 같은데?

이것들이...
나중에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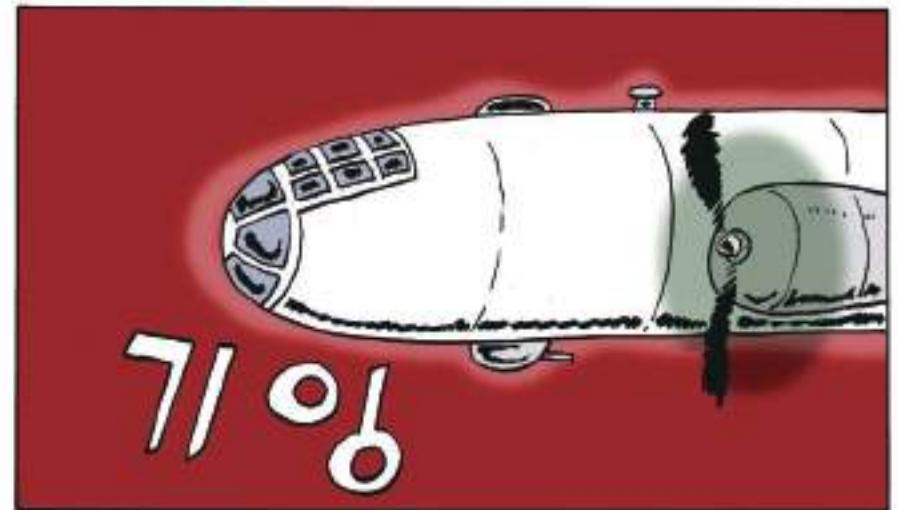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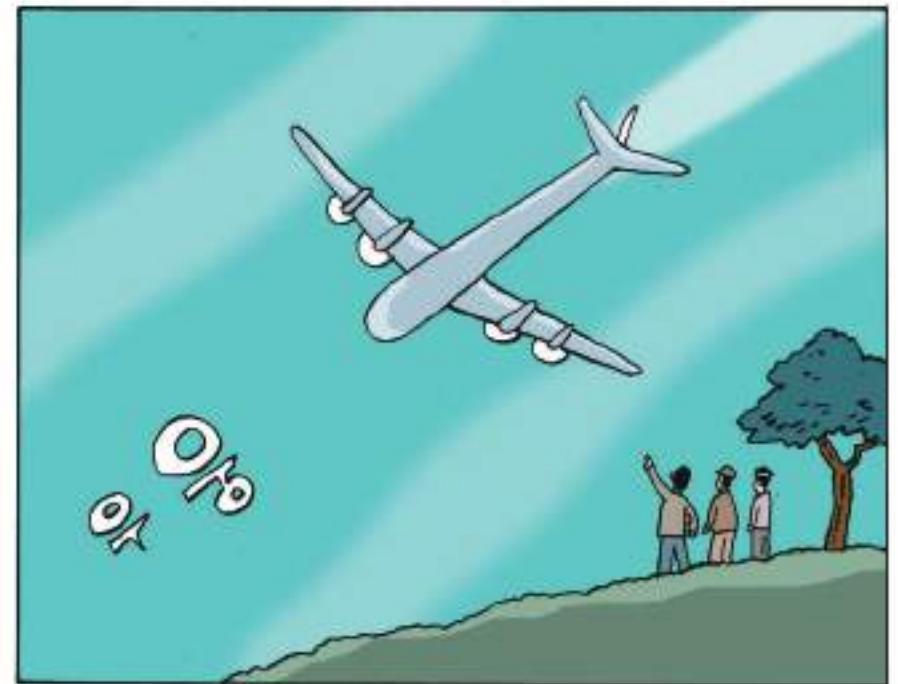


우리를 노예처럼
다루려고 하는구만.

저놈도 조선 사람인데
자기 출세를 위해
더 악랄하게 구는군요.

저 녀석, 찌소리도
못 하고 가는구만.
속이 다 시원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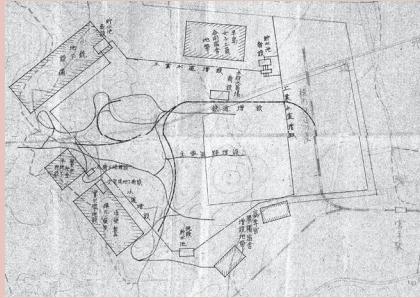
일제의 최후 결전과 땅 속 조병창

여러 개의 '부평지하호'는 암반이 노출된 채 '一' 자 모양으로 곧게 굴착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큰 곳은 길이가 100~150m인데, 지하호 중간에는 높이와 너비가 4~5m까지 확장된 공간이 확인되고 있어 애초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파 놓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1945년 초 패전을 눈앞에 둔 일제는 오히려 새로운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이미 미군의 폭격기가 일본의 주요 도시들을 공습하면서 수많은 피해가 발생하던 때였습니다. 일제는 미군의 상륙에 대비해 전라도 남서 해안과 제주도 일대에 대규모 지하 시설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주둔 일본군이 사용할 무기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조병창을 대규모로 확장하고 지하화를 진행합니다.

애초 조병창 지하화 계획에 따르면 지하 공장을 포함한 공사 규모는 총 15,112㎡에 달했습니다. 이 중 지하 및 반지하 시설은 10,732㎡로 축구장 1.5배나 되는 크기였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부평지하호보다 훨씬 많은 시설을 지하에 구축할 계획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일제는 1945년 8월 패망합니다. 조병창 지하 공장 공사는 굴착 도중 중단되었습니다. 암반을 뚫어 만든 커다란 동굴에는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과 조선인들의 강제 동원 피해가 까마득한 암흑 속에 오랫동안 숨죽이고 남아 있었습니다.

부평지하호의 구석구석, 구멍 하나하나에 모두 당시 식민지 조선인들의 손길이 닿아 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끌려왔다가 어두컴컴한 곳에서 자신과 상관없는 전쟁을 위해 죽음을 파고 있었던 사람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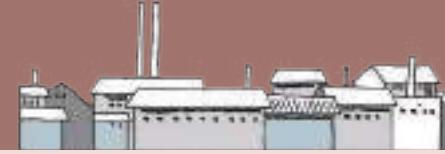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병창 지하화 계획이 담긴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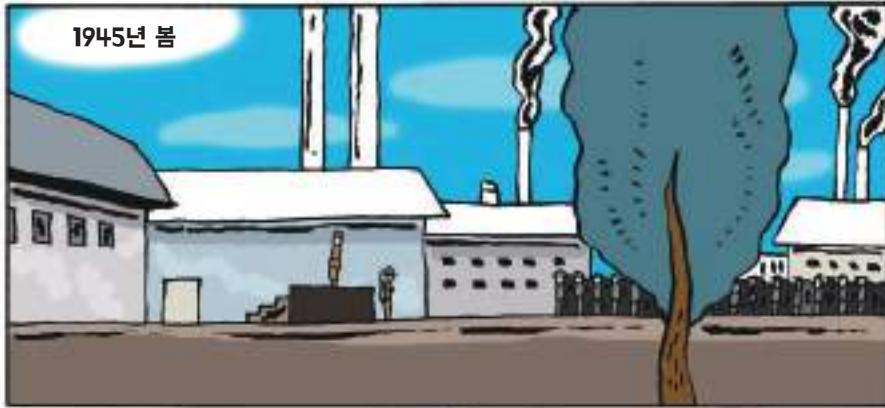
©부평민회
부평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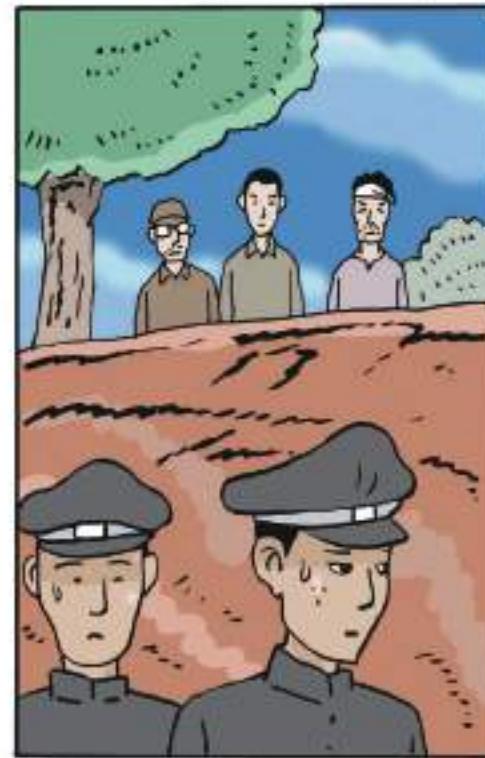
어둠 속의 부평지하호



5 땅굴









실제로 징집병으로
수많은 청년들이
전쟁터로 가고 있잖아.

그런데 조병창에서는
저렇게 어린 학생들을
어디에다 쓰려고
그러나.



저 학생들은
어디에서 온 거래?

인천 지역
학생들이라고
하던데요.

경성에서도
많이 동원이 된
모양이야.



경성에서까지
어린 학생들을
동원하는구나.

조병창에는 인력이
확 차 있는 것 같던데
어떤 일을 시키려고
하는 걸까요?

뭐, 만들자고 하면
할 일이 없겠어.
뭐가 뻘든 시키겠지.



재들은 어디에서
먹고 잔대요?

조병창 뒤쪽
언덕 위에 천막을
쳐 놨더라고.



어쩐지 그쪽으로
트럭들이 자주
들락거리더라고.

저 어린것들을
천막에 재우면서까지
무슨 일을 시키려고
저러는 걸까요…?

글쎄 말야.
왜 조병창
밖에다 숙소를
설치했을까?



그쪽에다
무슨 일을
꾸미는 것이
아닐까?

그 공공이를
누가 알겠냐고.



저기 또
그 미군 비행기가
날아가네요.



요즘 들어
미군 항공기가
자주 보이네.

저 비행기도
일본에서 폭격을
했을까요?

일본도 혼썰이
나는구만.



저 위에서 여기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럴지도 모르지.
여기가 무기 공장
이잖아.



손을 흔들어서
여기가 무기 공장이라고
알려 주고 싶네.

그러다가
폭탄이 떨어지면
어떡해요.



아, 그러네...

여기도 폭격에서
안전한 곳이
아니야.



이제는...
폭격을 당할까 봐
걱정을 해야 되네요.

글쎄 말야.
하루하루 노동으로
힘들어 죽겠는데.



들리는 소문에는...
남방까지 진격했던
일본군이 밀리고
있대요.

본토까지 폭격을
당할 정도면
패색이 짙겠는걸.





각하, 남방 전투에서
우리가 연합군에
밀리고 있습니다.



나도 안다.
그래도 우리는
천황 폐하를 위해
끝까지 항전한다.



황군에게 패배란
있을 수 없다.
오로지 명예로운
항전뿐이다.



본토 조병창들은
미군 공습으로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
부평 조병창 역할이
더욱 확고해진 것이다.



더 많은 무기가 필요하다.
철야를 해서라도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옛! 소총 생산량을
한 달에 4천 정 이상
두 배로 늘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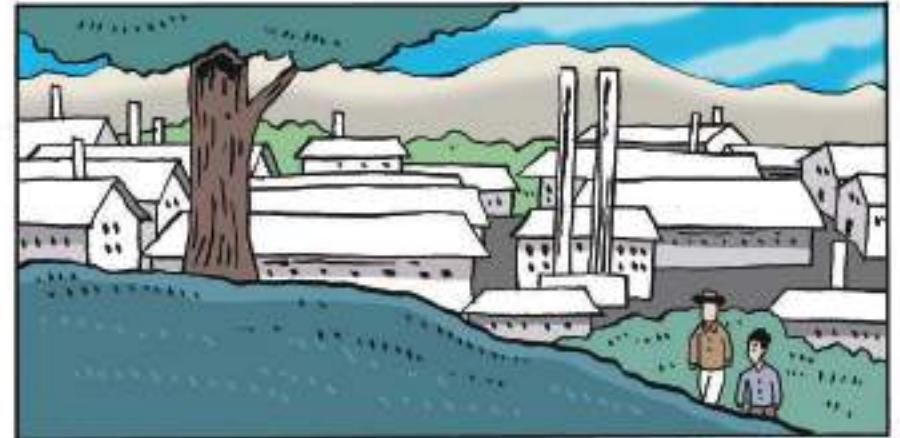


총검과 군도도
2만 자루 이상을 목표로
가동하고 있으며

총탄과 포탄
생산량도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어? 여긴
땅굴 작업 현장
같은데요?

여기가
조병창보다 편하고
임금도 낫다니까.



뭐야?
학생들이
많네요.

동원되어 온
학생들이인데 그래서
경험 있는 어른이
필요한 거지.



자네는 강원도
탄광에서도
일한 경험이 있잖아.

그거야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폭파 작업 좀 했죠.



저기 있는
일본 관리인이
작업 지시 사항을
알려 줄 테니까
잘해 봐.



어, 이게 아닌데...
나보고 다시
막장으로
들어가라고?



굴만 파는 거니까
괜찮을 거야.
거기선 석탄을
캔 거잖아.

하긴 석탄 가루를
안 마시는 것만
해도...









자, 모두들 들어가서
부서진 돌들을
실어 날라!



저기, 잠깐만요!
굴 안의 상태를 보고
인력을 투입해야죠.

이제까지
괜찮았어.



허술한 돌벽이
무너지면 큰일 나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작업 공정이 늦어져서
조병창 본부에서
매일 제촉인데



내가
문책당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당신은 시키는 일만
제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다가
어린 학생들이
다치거나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려는 거요?



그거야 자기 운명이야.
군국에 보답하는 거고.

!







그 많은 땅굴을 왜 파는 거죠?

일본 본토가 미군 공습으로 다 파괴되고 있잖소.



그래서 본토에 있는 조병창들 피해가 심한 것 같소.



그래서 이곳 부평 조병창의 무기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거겠지.



땅굴이면 미군들 폭격에도 안전할 수 있으니까...

아! 땅굴에서 무기를 만들겠다는 속셈이군요.



그런데 이 작은 산에 열 개나 되는 땅굴을 어떻게 판다는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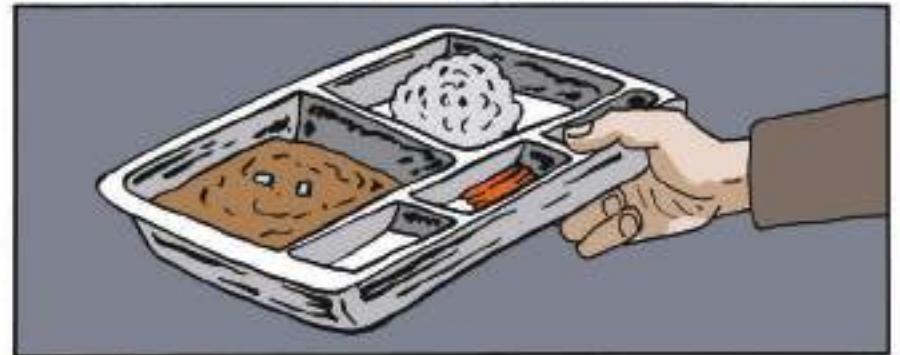
사방에서 파고 있으니 꽤 넓고 긴 터널이 될 거요.



아마도 모든 땅굴 구간들을 연결시키면 엄청난 양의 무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겁니다.

두터지도 아니고...











여보슈, 관리인.

?



힘들어서 여기서는 일을 못 하겠으니 나가겠소.



뭐!?



이 사람이 아직 상황 파악을 못 했구만.

예?



여기는 한번 들어오면 맘대로 못 나가.

그런 법이 어딴소?



히히~ 그럴 배짱이 있으면 어디 나가 보슈.



바로 체포돼서 오늘이라도 당장 전쟁터로 끌려갈걸?

...



차라리 여기 있는 게 안전하다는 걸 명심해.



저 사람 말이 맞소. 나도 일본 탄광으로 안 끌려가려고 여기 온 거니까.







으악
살려 줘요!



뭐야?

학생이
돌무더기에
깔렸어요!



에잇!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황 씨! 위험해!
계속 무너진다고!



어디야?

여기예요...



끄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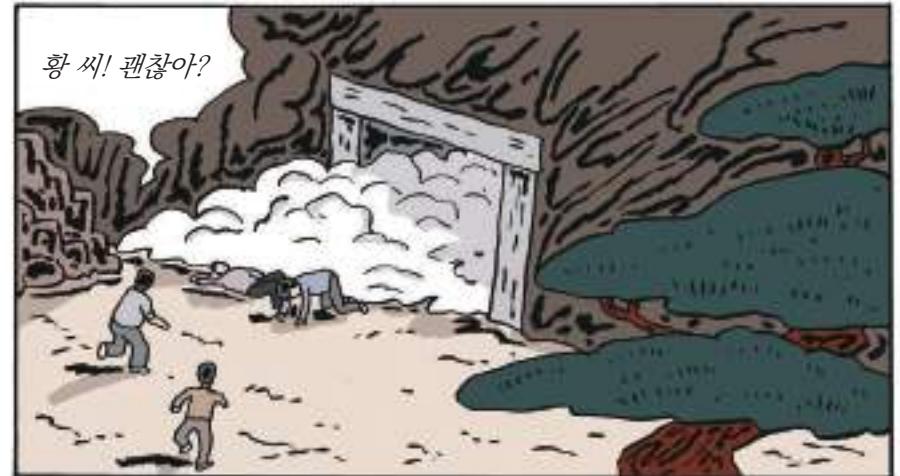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요.



으윽...



자, 내 등에 업혀.
아파도 조금만 참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경고하겠다.
아이를 속소로 보내!

신음 소리를 듣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요?



어이, 관리인!
헌병한테 사정 좀 해줘요!
잘못하면 이 아이가
병신이 된다고요!



지금 조병창 병원 의사들이
본국으로 소환돼서 거기도
일손이 부족한 데다가...,
나는 조병창 명령에
따를 뿐이라고.



그따위 말이 어딴어!
당신이 책임져야지!



이보슈!
이 아이 좀
살려 주시오!

그렇게 합시다.
아이가 무척
아파하는데.

일단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돌아오면
되잖아요.



이것들이! 감히
대일본 제국의 헌병에게
대들겠다는 거야!?



지금 이 순간부터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면
가만두지 않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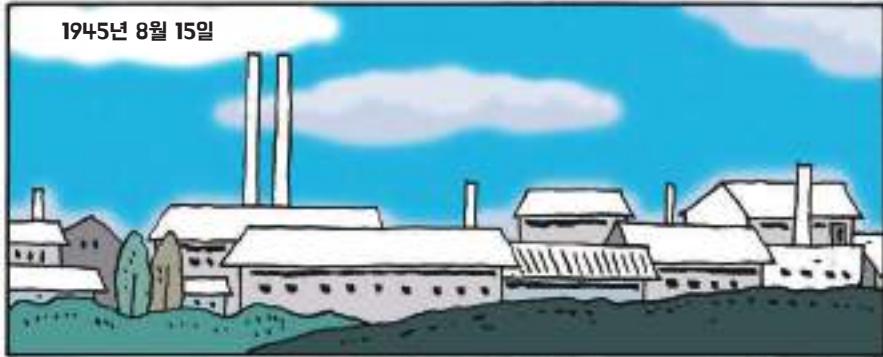
우선 아이부터
살리고 봅시다.

나도
애들이 있는
애비라서...













허허~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는구나.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
어서 집으로 가 보렴.

예, 아저씨도
몸 건강히
지내세요.

깨어났소?
일주일 넘게
의식이 없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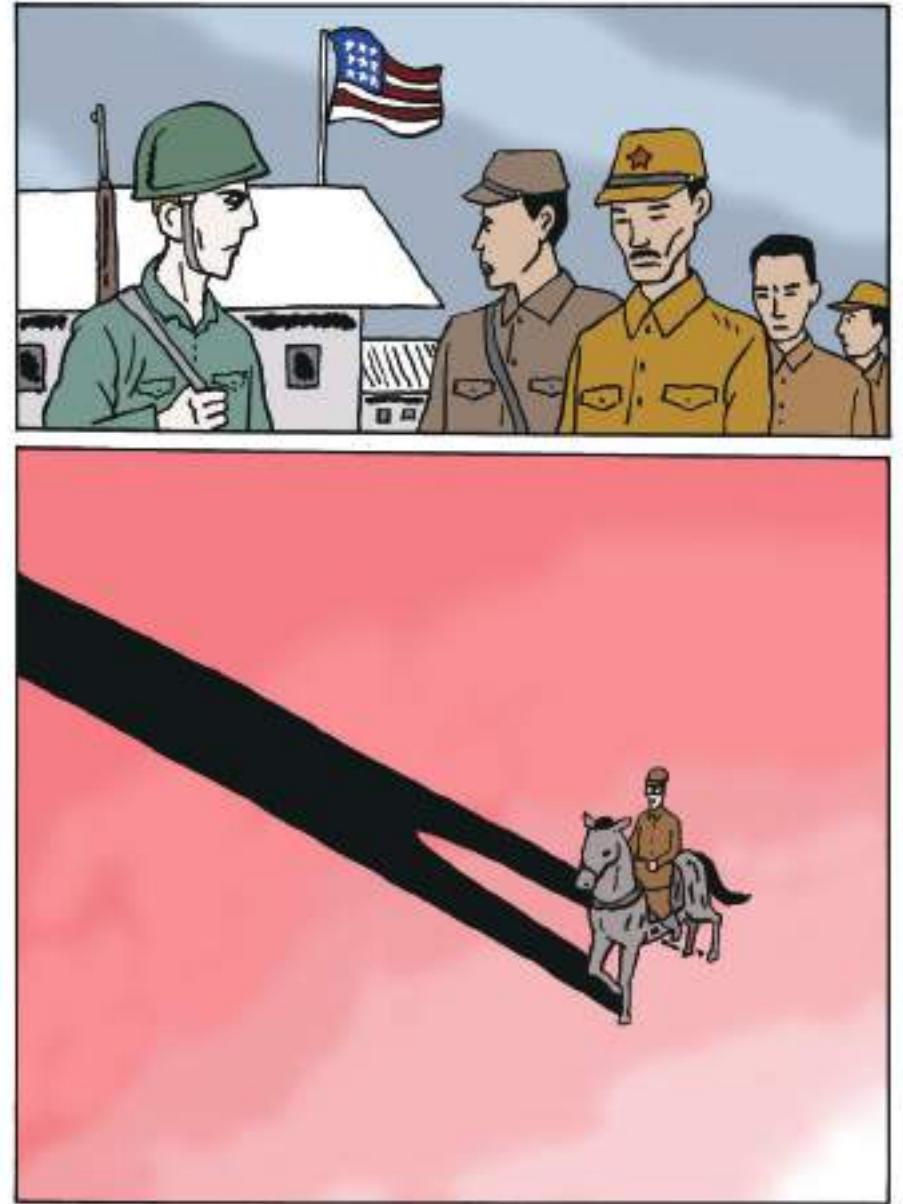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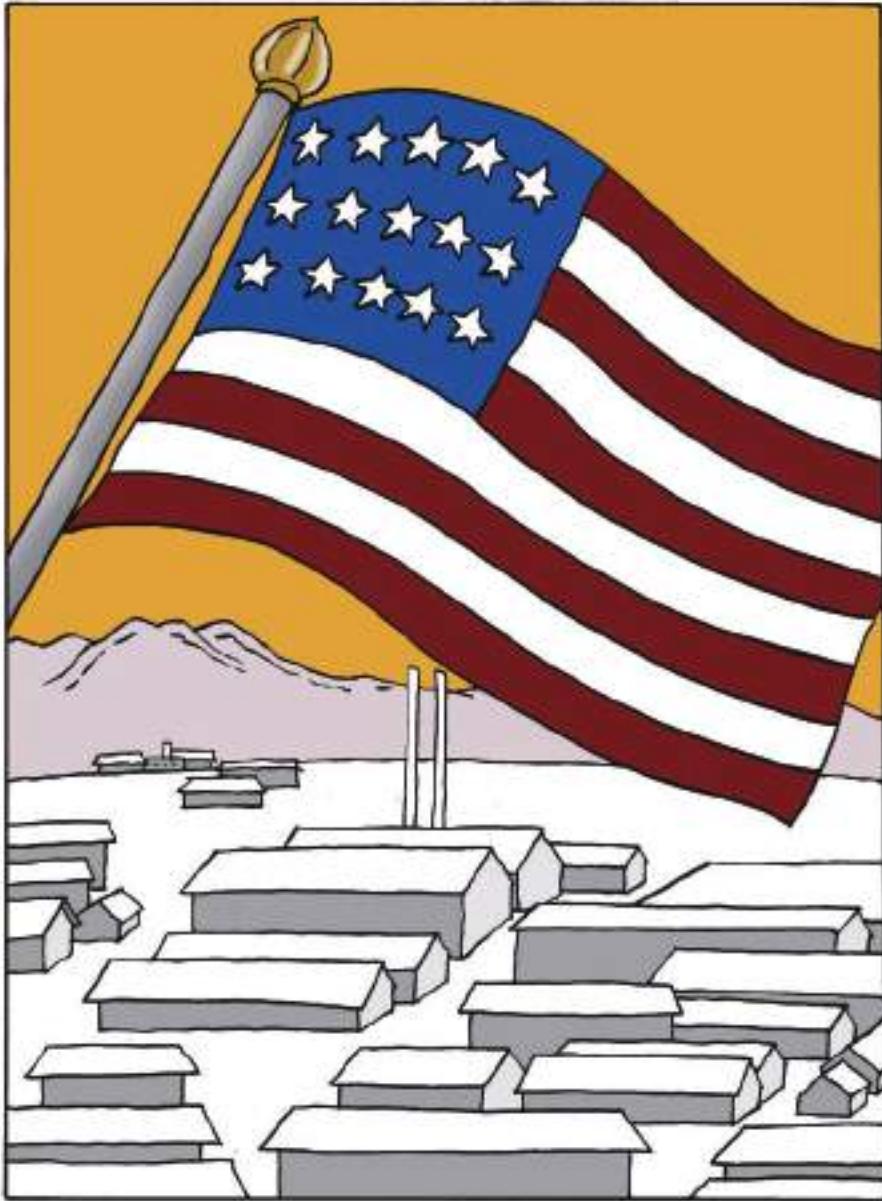
깨어나니
해방이라네요.
이거 꿈은
아니죠?

이제 황 씨는
어디로 갈 거요?

글쎄요...
어디로 가야 하지...?

허허, 이젠 맘대로
살 수 있으니
종구만 좋아.

예, 좋네요.
아직 실감은
안 나지만요.





아니! 저 사람은 제1 공장장 아냐?

일본인들은 다 떠났는데 왜 아직도 조병창에 있는 거지?



미군들이 저 사람에게 조병창 치안 대장을 시켰대요.

뭐? 친일파에게 그런 요직을!?



해방이 됐는데도 저런 인간이 활개 치고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되다니...

점령군이 일본에서 미국으로 바뀌었을 뿐이고, 우리는 그대로네...



어허~ 앞으로가 걱정이구나.



해방은 뜨겁게 찾아왔지만
현실은 우리를 무겁게 겹돌고 있었다.
해방이 남의 것처럼...





1. 미군 기지가 된 조병창

1945년 8월 15일 일제는 패망했습니다. 일본은 패전국이 되었고 식민지 조선은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전쟁 책임이 있는 패전국 일본 대신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할되고 말았습니다. 북한에는 소련이, 남한에는 미군이 각각 진주하면서 일본군의 무장 해제와 전후 복구를 담당했습니다.

미군이 9월 8일 인천을 통해 한반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때까지 인천에는 무장한 일본군 헌병대가 치안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미군은 자신들이 진주하기 전까지 일본군에게 남한 내 치안 유지를 대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패전국이 되었지만 여전히 일본군은 스스로를 지키며 한반도에서 위세를 잃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군에 대한 미군의 무장 해제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사흘에 걸쳐 미군은 서울과 인천 일대의 주요 시설에 경비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이 중 인천육군조병창은 가장 중요한 시설물로 인식되었습니다. 강제 동원 되었던 조선인들은 귀가했고 패잔병으로 남은 일본군들은 미군에 항복을 준비했습니다.

조병창을 무장 해제 한 후 부평에는 미군 제24군수지원사령부가 주둔했습니다. 일본군의 군수 병참 시설이 미군의 군수 병참 시설로 바뀐 것입니다. 미군은 부평에서 무기를 생산하지는 않았지만 주한 미군에 필요한 여러 군수 물자들을 부평 조병창에서 생산하고 보관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때부터 이 일대를 '애스컴 시티'라고 불렀고 이 중 일부를 '캠프마켓'이라고 했습니다.

2. 조병창의 새로운 이름, 애스컴 시티와 캠프 마켓

해방 이후 미군의 부평 주둔은 길지 않았습니다. 1949년 주한 미군 철수 결정에 따라 부평 지역의 제24군수지원사령부 역시 인천항을 통해 빠져나갔습니다. 미군이 철수한 부평에는 국군이 주둔했는데, 국군은 1949년 6월 미군으로부터 조병창 시설을 인수했고 이후 육군병기공장을 창설해 소총 등 무기 생산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국군의 주둔 기간 역시 길지 않았습니다. 한국 전쟁 개전에 따라 미군이 다시 부평에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부평에 다시 주둔한 미군은 조병창 자리에 보급 부대를 두는 한편 포로 수용소를 설치하여 약 1,400명의 북한군 포로를 수용했습니다.

휴전 이후 애스컴 시티는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이때부터 1970년대 초까지 부평은 주한 미군의 후방 지원 사령부로 확고히 자리매김하여 군수 물자를 생산하고 지원하는 등의 종합 병참 기지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애스컴 시티는 1970년대 초반 주요 부대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해체 수순을 밟았습니다. 1971년 미 제121후송병원이 용산으로 이전했고, 그 밖의 시설들은 1973년 경북 왜관의 캠프 캐럴로 옮겨 갔습니다. 결국 1973년 6월 30일 애스컴 시티는 공식적으로 해체되었

고 이후 캠프 마켓만이 명맥을 유지하게 됩니다. 캠프 마켓은 애스컴 시티에 비교하면 작은 규모지만 폐쇄될 때까지 미8군의 군수 지원 역할을 꾸준히 담당했습니다. 특히 주한 미군에게 제공되는 빵 제조 공장이 2020년까지 운용되었습니다.

3. 일본군 조병창과 캠프 마켓의 유산

애초 부평 전역에 퍼져 있었던 일본군과 미군의 주둔 공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반환되었고, 반환된 지역은 대부분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예전의 자취가 사라졌습니다. 일본군 조병창과 미군 애스컴 시티 일대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고, 자동차 공장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부평공원, 부영공원 등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꾸며진 자리도 있습니다.

현재 이전의 역사를 간직한 공간은 국군 제3보급단이 주둔하고 있는 함봉산 좌측 일대와 최근까지 미군이 사용했던 캠프 마켓 정도입니다. 그리고 인근의 산간에 구축되어 있는 부평지하호와 조병창에 동원되었던 조선인 노동자들의 숙소 몇 동이 그 흔적을 보여 줄 뿐입니다.

부평의 현대사는 일제 강점기 조병창을 비롯한 아픈 역사의 굴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농촌 지역이었던 부평에 1930년대부터 하나둘 기계 공장이 설립되고, 이후 일제에 의해 경인공업지대 조성 계획 등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바탕 아래 인천육군조병창이 부평에 설립되었던 것입니다. 조금 비약해서 말하면, 하루아침에 농촌 마을이 한반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군산복합단지로 변모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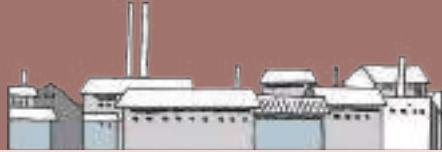
미군의 캠프 마켓 부지와 함봉산 일대에 남겨진 일제의 조병창 유적을 미래 세대에 어떻게 남겨 줄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좋은 답은 이 지역의 유적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정확하고 의미 있게 인식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애스컴 시티 항공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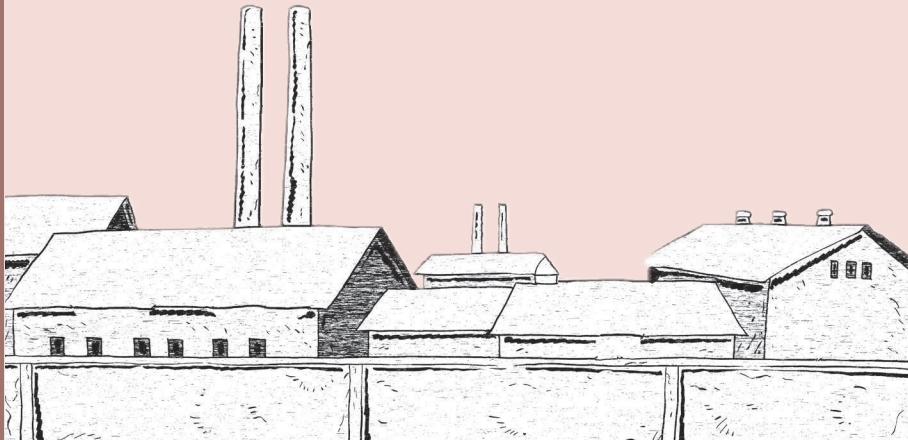
©부평역사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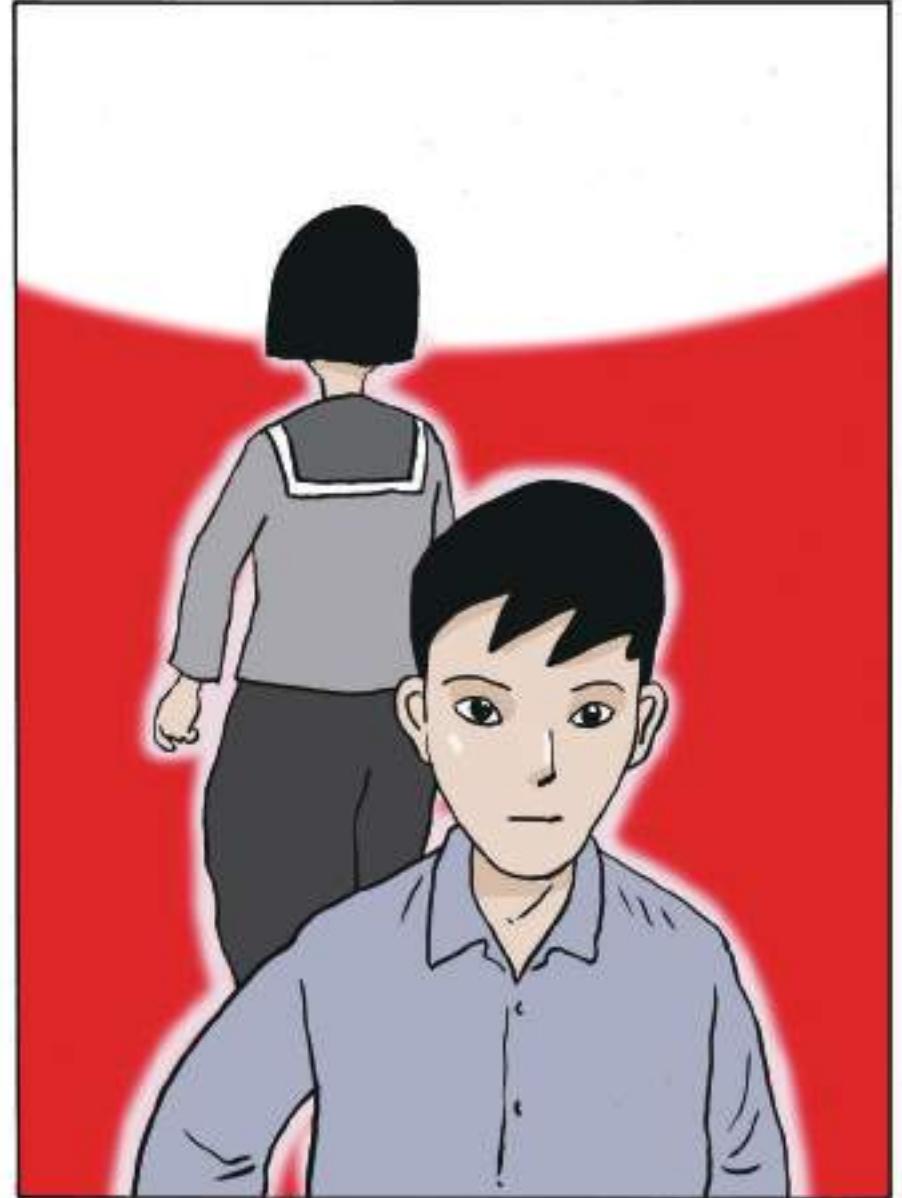
에필로그

아픔의 역사를 기억의 공간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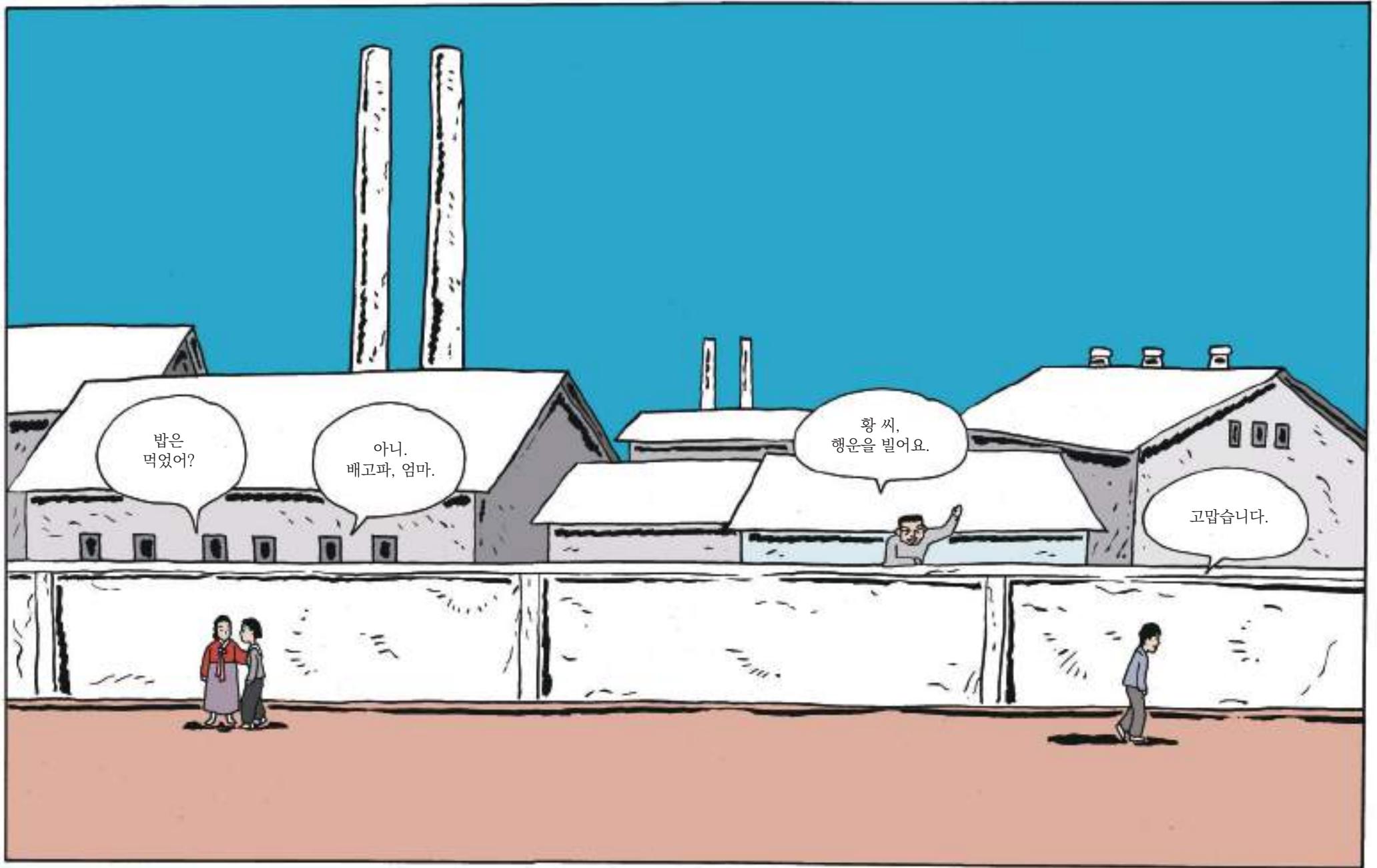












밥은
먹었어?

아니.
배고파, 엄마.

황 씨,
행운을 빌어요.

고맙습니다.

만화부평사

1945, 부평 조병창 이야기

©탁영호 2022

초판 1쇄 발행일 2022년 6월 13일

지은이 탁영호

발행인 이영훈

기획·제작 딸기책방

발행처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트센터로 166

대표전화 032-500-2000 | 팩스 032-506-9022 | 이메일 musicitybp@gmail.com

ISBN 979-11-91126-14-3 07910

이 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